

이 창 석*

서울여자대학교 환경·생명과학부

현존식생도에서 식생경관요소는 조림지와 이차림으로 대별되었다. 조림지는 산복 이하의 저지대와 남사면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조림수종은 아까시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은사시나무, 리기다소나무, 메타세쿼이아, 개벚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등이 부분적으로 식재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남산 제모습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들 조림수종을 배어내고 소나무로 대체 조림하거나 성숙한 조림수종 밑에 전나무나 잣나무를 식재하여 수종갱신을 꾀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었다. 이차림은 남사면에서는 소나무림이, 그리고 북사면에서는 신갈나무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북사면의 저지대에는 남사면과 마찬가지로 소나무림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식생경관요소의 분포pattern을 서울시 주변지역의 것과 비교하여 남산의 식생경관요소가 크게 단순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인위적 간섭의 정도를 반영하는 Patch의 수를 비교하면, 그 수는 고지대보다 저지대에서 더 많았고, 남사면과 북사면을 비교하면 남사면에서 더 많았다. 그리고 그 수는 과거(이 1986)와 비교하여 증가하는 경향이였다. 한편, Patch의 크기는 그 수와 반대경향을 나타내었다. 복원방안은 각 경관요소의 식생특성, 토양특성, 그리고 인위적 간섭요인을 분석하여 검토하였다.